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 토지 거래 활발

3분기 누적 구좌·조천·남원 전년보다 거래면적 증가
서울 거주자 제주시 동부권 중심 매입 면적 9배 늘어
서귀포시는 대부분 필지수·토지면적 모두 줄며 외면

올해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가 11년 만에 재개되면서, 인근 읍면지역의 토지 거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했다. 다만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 속에 서귀포지역의 토지 거래는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5일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9월말 기준 토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1~9월) 누적 토지거래 규모는 1만8340필지·2520만6000㎡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8459필지·2076만7000㎡에 견줘 필지수는 119필지(-0.64%) 줄었으나 면적은 425만9000㎡(20.51%) 늘었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1만2467필지·1930만㎡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1455필지·1105만3000㎡에 비해 필지수는 1012필지(8.83%), 면적은 824만7000㎡(74.61%) 증가했다. 반면 서귀포시는 5873필지·572만6000㎡로 지난해 동기의 7004필지·971만4000㎡보다 1131필지(-16.15%)·398만8000㎡(-41.06%)나 감소했다.

읍면동별로는 제2공항 예정지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까지의 파장이 컸다. 기존 성산읍 전역에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 5만2948필지·1억760만㎡(107.6㎢) 가운데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를 뺀 1억210만㎡(102.1㎢) 규모의 토지가 지난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다만 개발사업 예정지는 고성·난산·수산·신산·온평리 소재 토지(5.5㎢)로 2029년 5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된 상태다.

이처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 토지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올해 3분기까지 822필지·87만5000㎡가 거래됐다. 성산읍과 지리적으로 접한 제주시 구좌읍의 이 기간 토지거래량이 1204필지·1112만4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10필지·169만㎡에 견줘 294필지(32.31%)·943만4000㎡(558.18%) 늘었다. 서귀포지역에선 유일하게 남원읍 지역의 토지 면적만 20%가량 늘었고 대부분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거주지별로 도민 거래는 지난해 동기대비 감소세(-13.03%)를 보였고, 서울 거주자의 경우 필지수는 감소(-4.95%)한 반면 거래 면적은 급증세(155.36%)를 기록했다. 거래 면적상 행정시별로 제주시는 구좌읍과 조천읍을 중심으로 1년새 9배 수준으로 늘어난 반면 서귀포시는 70%가량 감소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별빛누리공원 '별 볼 일 있는 천문여행'

14일 개최… 점성술 체험·과학 마술·천문 강연 등 다채

제주별빛누리공원과 한국관광공사가 오는 14일 '별 볼 일 있는 천문여행' 행사를 개최한다.

5일 제주별빛누리공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천문학과 깊은 연관이 있는 점성술을 통해 '나의 우주'를 찾고, 과학과 예술을 통해 우주를 다채롭게 느껴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는 별자리 문화체험을 비롯해 자신이 태어난 시기와 행성의 배열을 바탕으로 '나의 우주'를 살펴보는 점성술·타로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과학 마술(오후 2·5시 2회), 돔 음악회, 천문 강연도 운영된다. 돔 음악회는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10분까지 이어진다. 돔 스크린 아래에서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현악 4중주 연주는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감성을 선사한다. 천문 강연은 오후 7시부터 8시 20분까지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의 과학커뮤니케이터 항성이 '별빛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마술, 음악회, 강연 프로그램의 참가비는 좌석당 2000원이며, 전체 좌석의 80%에 한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12일 오후 9시까지다.

제주별빛누리공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백금탁기자

도, 학교 통학로 점검… 개선 요청 189건 조치

보행 공간 확보·교통 불편 해소 등 통학환경 개선

제주특별자치도가 2018년부터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를 운영해 48개 학교의 통학로를 점검하고 개선 요청 270건 중 189건을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는 어린이 통학로의 위험요인을 현장에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와 교육청, 자치경찰, 행정시, 읍면동, 학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 협의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통학로 보행공간 확보 및 연속성,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 위험요인, 교통안전시설 설치·정비 필요성, 등·하교 시간대 교통 불편사항 등이다. 올해는 도내 9개 학교에서 현장회의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개선 요청 38건을 발굴했으며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주·정차 단속구역 지정 등 10건을 조치했다. 나머지 28건은 관계기관과 개선방안을 협의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연말까지 우도초, 아라초, 신제주초 등 3개 학교를 추가 방문해 통학로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현장점검에서 발굴된 개선과제가 실질적인 통학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서귀포시 국유재산 도로 정비사업 추진… 4억 투입

주민 통행 불편 등 해소

서귀포시가 국유재산(도로) 내 주민들이 실제 도로로 이용 중이나 지적 불일치 등으로 주민 갈등을 겪는 대상지의 통행 환경을 개선하고 소유권 분쟁 예방을 위해 '서귀포시 국유재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일부 국유재산은 실제 현황 도로와 지적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주의 사유권 행사(경계말뚝 및 펜스 설치 등 통행금지 조치)로 인한 주민 간 분쟁이 빈발하고 주민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

이에 시는 현장 조사와 정비를 통해 지적 경계 불일치 해소를 위해 올해 4억원을 투입해 정비가 시급한 구간 10개소 중 상반기에 남원읍 하례리·수망리, 안덕면 사계리·화순리, 법환동, 상예동 등 6개소를 정비했다. 하반기에 안덕면 상창리·덕수리, 남원읍 위미리, 서홍동 등 4개소 사업을 추진해 사업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분주한 겨울 준비 입동(立冬)을 이틀 앞둔 5일 인천 서해구 한 연탄 보급소에서 관계자들이 배달할 연탄을 트럭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서귀포시, 다회용기 사용으로 탄소 11t 줄였다

27개 행사에 41만개 지원
내년 확대… 관리체계 강화

서귀포시가 최근 '2026년 주민자치&평생학습 박람회'를 끝으로 올해 행사·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마무리, 탄소 11t가량을 줄이는 성과를 냈다.

시는 올해 총 27개 행사·축제에 다회용기 41만개를 지원, 이를 통해 온실가스 약 11.4t을 감축하고 약 5.3t의 일회용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 3월부터 1억원을 투입해 행사장에서 사용하는 1회용 접시, 컵, 수저 등을 다회용기로 대체하고 대여부터 회수·세척까지 전 과정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현장의 이용 불편사항을 반영해 숟가락 6000개, 젓가락 7800개, 식기류 1만 2000개 등 총 2만5800개를 추가 확보하는 등 다회용기 이용 편의를 높였다.

시는 올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40개 행사·축제로 확대하고, 다회용기 이용 편의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사별 수요에 맞는 다회용기 공급과 회수·반납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 백금탁기자

"정서위기학생 치료비 지원 신청하세요"

도교육청, 증빙서류 접수

제주도교육청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병·의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가운데, 올해 신청 기간이 오는 12월 18일에 종료된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치료비 청구가 마감되는 내달에도 1일부터 18일까지 집중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이며, 학교 밖 청소년(2008년생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서다.

신청을 희망하면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과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마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지은기자

국립종자원 인증'무병묘'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2026년 예약 중
보조사업 가능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귤
유라조생 / 하귤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010-4450-4316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 장원농장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큘고리!



쉽게 높이조절되는 귤고리 귤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귤고리'가 있습니다!

귤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재구입비 회수가능
2. 귤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귤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귤고리 작업세트 구성


귤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귤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